

익산, 2020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준비

국세·지방세 윈스톱 신고체계... 합동신고센터 운영

익산시가 2020년부터 전환 계획인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대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하는 방식에서 지자체에서도 동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시는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윈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합동신고센터가 운영되면 납세자의 접근성이 향상은 물론 신고 대기 시간이 단축되는 등 납세 협력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대비해 지난 3월 행안부 주관 지방소득세 신고대비 권역별 실무교육에 참석해 법령 개정사항과 운영요령 등의 과정을 이수했다.

또 201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 동안에는 익산세무

서에서 소득세 신고를 직접 받으며 국세청 소득세 신고체계 전환에 대해 벤치마킹하는 등 업무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 담당자 2명 추가 배치해 조직을 정비하고 2020년 합동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는 등 독립세 전환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관내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 음식점업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과 함께 홍보 팸플릿 제작 및 배부, 플래카드 게시, 내고장 소식지 게재 등 개인 납세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은 신장성이 우수한 소득 관련 세목을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민원인 편의 증대 및 국세와 지방세의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미래혁신포럼 통해 해외대학 교육혁신사례 공유

원광대, 일본 불교대학 다나카 노리히코 총장 초청 강연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최근 일본 불교대학 다나카 노리히코 총장을 초청해 교내 프라임관에서 제4회 원광미래혁신포럼을 개최했다.

대학의 성공적인 교육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대학 혁신을 위한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원광미래혁신포럼은 제4회를 맞아 처음으로 해외대학 사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교육과정 개혁 사례 등을 설명했다. 박맹수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교는 1973년 자매결연을 하고, 학문적 교류를 이어 오면서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리탐구라는 대학의 목표달성을 위해 진정한 우의를 쌓아 왔다"며, "이러한 노력은 양교 발전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적 구축에도 큰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대학에서 행해지는 연구와 교육은 인간의 삶에 반영되어야 가치 있는 것이 된다"며, "현재 일본은 학생 인구 감소로 총 780여 개 대학 중 100개 이상의 대학이 폐교를 준비하고, 수도권 대학의 정원감축과 대학간 통폐합, 학과 통합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립대학은 존속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 생존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교대학은 점점 및 평가를 위한 조직으로 대학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인증평가 등에 관련되는 조사연구와 학내의 각종 데이터를 집약해 대학평가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프로세스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집약된 데이터 분석과 연구,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위한 IR(Institutional Research) 조직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제12기 디지털농업인대학 졸업식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디지털농업인대학 제12기 졸업식을 14일 총동창회 산배들과 가족들을 초대해 농업인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2기 졸업생 40명은 지난 3월 4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지난 7일까지 총 21회 116여 시간동안 신소득작목과정을 이수했다.

디지털 농업인대학 신소득작목과정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의 탐색을 통한 우리지역 농업인의 경쟁력 및 소득향상을 목표로 개설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신소득작목의 소개와 재배방법, 선진농업 현장교육, 농업인 생활법률, 교육생간 단합을 위한 워크숍, 한마음대회 등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졸업식은 제12기 졸업생들을 위한 확장식(군산시장)의 졸업축사 및 상장수여식, 선배졸업생과의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상장수여식은 우수한 학업성과로 근면 성실한 교육생을 표창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장은 "2020년 디지털농업인대학은 관내 대학의 평생교육체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농업인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여 학사 취득의 기회 및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농업인대학은 지난 2008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지금까지 11기에 걸쳐 44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디지털농업인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농업인은 강소농 육성 프로그램과 품목별농업연구회 회원으로 가입 활동하게 된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 원예특작 신기술보급사업 최우수상

꼬꼬마양배추 수출 140톤 · 국내 150톤 목표로 공급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을 동시 개척한 꼬꼬마양배추가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3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실시된 "2019년도 원예특작 신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에서 "꼬꼬마양배추 육성과 수출사례"가 전체 76개사업 530개소 중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기술보급사업평가에서 최고의 영예인 최우수상을 받은 군산 꼬꼬마양배추는 지난해 처음 재배해 일본과 대만에 수출을 했다. 이번에는 면적을 2배인 16ha로 늘렸으며 수출은 140톤으로 3배이상 증가했으며 국내시장은 대형유통업체인 롯데마트에 150톤을 목표로 공급하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

과 이우일지도사는 "군산의 꼬꼬마양배추는 시작하지 불과 2년도 안된 짧은 기간에 해외수출과 국내시장개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으며 특히 해외수출에서 상품성을 인정받아 국내시장에 공급되는 보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문현조 기술보급과장은 "꼬꼬마양배추는 샐러드용 양배추 소비가 많은 일본과 다양한 볶음 요리가 발전한 대만시장을 목표로 지난해 재배를 시작해 2019년도 농촌진흥청 수출유망품목 선정, 농식품부 미래클 캐피투드 육성 품목에 선정되는 등 중앙부처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논벼를 대체하는 고소득작물로 지역농가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모범납세자 선정 의료비 우대 혜택

군산시가 성실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의료비 우대 등 혜택을 주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14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4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납세자 선정은 매년 일정액(법인 1천만원, 개인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체납하지 않고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인중

서가 개별 발송되며 1년간 농협은행에서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달 29일 체결한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에 따라 본인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군산시에 소수를 둔 직계존비속 중 1명)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으로부터 종합검진비(7종) 30%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20% 할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으로부터는 종합검진비 20% 일일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안전도우미 양성교육' 호평

군산시가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안전도우미 양성교육'을 실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군산시는 교통사고, 화재, 응급처치 요령 등 일상생활 속 위기상황의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안전도우미 양성교육을 14일 시청 민방위 상황실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읍면동 복지도우미, 통·리장, 직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로 부터 교통 사고·화재예방, 심폐소생술, 심장

제세동기 작동, 응급처치 요령 등 실용적인 안전체험 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위급상황시 안전을 위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점에서 매우 뜻 깊은 교육이었다고 호평을 받았다.

또한,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교육을 상반기에 이어 9월 노인종합사회복지관, 10월 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등 약500여명이 교육에 참여 한 바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원광대학교는 최근 일본 불교대학 다나카 노리히코 총장을 초청해 교내 프라임관에서 제4회 원광미래혁신포럼을 개최했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당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